교회소식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2012년 교회표어: 그 한사람, 그 예배자 (요한복음 4:24)

1 부활주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됩니다.

2 모임: 1부 예배 후에 각 남녀 선교회 임원 및 행사 진행부원 모임이 유아실에서 있습니다.

3 성경공부: 성경공부를 아래와 같이 시작합니다. 신청 바랍니다.

산상수훈을 통한 바른 제자 되기 시간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 12시 30분	강사:진혜령 전도사 (개강: 4월 20일, 기간: 12주)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시간: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 12시 30분	강사: 심창진 목사 (개강: 4월 17일, 기간: 10주)
일대일 제자양육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 9시 (개강: 4월 24일, 기간: 12주, 교재비: $20)	강사: 이태한 목사

※ 장소: 계수실 동일

4 훈련: 경건(Q.T) 훈련 세미나가 4월 18일(수), 19일(목)에 있습니다.
시간:오전 10시 30분-12:30분, 장소 계수실, 강사:이태한 목사

5 Tax Refund: 헌금 확인서가 준비되었습니다.

6 감사: 꽃꽂이와 식사로 섬겨주신 성도와 베트남 공동체 식구들 감사합니다.

7 사인: JP 사인 필요한 성도는 남영수 집사(변호사)에게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8 연기: 공동체 장기자랑은 연기 되었습니다.

9 월례회: 2남 선교회 월례회가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갈보리 교회가 돕는 선교지

해외 선교

루마니아: 김유정선교사 (집시사역)

중국: 김강한목사 (탈북자사역)

바누아투: 삼마교회 및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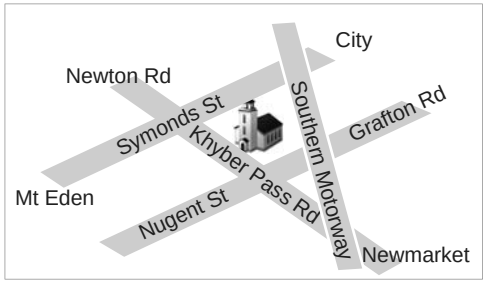
국내 선교

밀알장애우 봉사

예배시간 안내

예 배	시 간	장 소
주일1부예배	주일 PM 1:00	본당
주일2부예배	주일 PM 3:00	본당
수요예배	수요일 PM 7:30	본당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Chapel
아동부	주일 PM 1:00	Chapel
중고등부	주일 PM 1:00	별관

오시는 길



2012년 4월 8일
부활절

14권 15호

교회창립 1999/07/14

2012 그 한사람 그 예배자 (요4:24)

모순의 진리 - 이태한 목사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먼저 4 복음서의 부활 기사는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 근처라 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예루살렘과 갈릴리에 나타나셨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무덤에서 말을 전해준 사람들이 다르다고 합니다. 즉 마가복음에서는 한 젊은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젊은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무덤에 한 천사가 있었다고 하고, 요한복음에서는 두 천사입니다. 이와 같은 모순이나, 다름이 있기에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모순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어떤 사건에서 표현의 문제이고, 사건의 외관상의 지엽적인 문제일 뿐이지, 그 사건 중심 내용에 관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간과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에서도 사람들이 그 보는 관점에 따라 달리 기록될 수 있으나 부활이라는 사건은 그 자체는 분명하고 불변한 것입니다. 왜 마가복음에는 한 젊은이가, 요한복음에는 두 젊은이로 되어 있습니까? 무슨 일이 생긴 것입니까? 마가복음은 주후 60년경에, 요한복음은 주후 1백 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가 40년간, 전해지고 또 이야기되었다면, 도중에 그 이적에 대해서 점점 구체적이 된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일은 인간 본성의 발로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자체는 불변합니다.

은행가 제임스 호프 심프슨경은 수표의 싸인에 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은 사람에 의해 싸인 되었다고 생각되는 두 장의 수표를 손에 넣고, 이것을 햇볕에 비추어 보고, 받쳐보고서, 전혀 다름이 없고 1mm도 어긋남이 없을 정도로 두 개의 싸인이 일치될 경우면, 그 중의 하나는 위조수표라고 믿어도 틀림없습니다. 누구도 자기의 이름을 똑같이 두 번 쓸 수는 없습니다.

두 학생이 꼭 같은 답안을 제출했을 때는 이것을 진실이 아닌 공모나 합작인 것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이야기란 각각 다른 사람에 의해 전해질 때, 반드시 다르기 마련입니다.

그 다름과 모순이야말로 진리라는 증거입니다. 부활의 이야기가 사람의 창작이었다면, 계산이 조금도 어긋남 없게 맞추고 조화시켰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근본적으로는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그 진실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모순 때문에 부활을 의심하거나 조바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갈보리교회 담임목사: 이태한

St. David's Presbyteri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 - 369-5077 Ph: 09-475-6312 www.calvary.org.nz

주일 1부 예배

오후 1시		인도:이태한목사
전주		반주자
예배로 부름	고린도전서 15:50-52	인도자
개회송		찬양대
참회의 기도		다함께
※ 찬송	64장	다함께
※ 성시교독	133. 부활주일1	다함께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161장	다함께
대표기도		이동술집사
세례식		집례자
성찬식		집례자
성경봉독	마가복음 16:1-8	인도자
찬양대찬양		나무십자가찬양대
설교	굴려진 돌	이태한목사
찬송	165장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 응답송	살아 계신 주(1,3절)	다함께
※ 축도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2부예배 (15:00)

인도: 심창진 목사
찬양 / 심창진 목사
기도 / 박영태 집사
성경봉독 / 눅 24:1-8
설교 / 기억해 보십시오 / 심창진 목사
찬송 / 문들아 머리 들어라
헌금기도 / 인도자
광고 / 인도자
축도 / 심창진 목사

수요예배 (19:30)

인도: 이태한 목사
찬양 / 수요찬양단
기도 / 김재연 집사
성경 / 삿 8:22-35
설교 / 또 꺼진 부흥의 불 / 이태한 목사
합심기도 / 인도자
광고 / 인도자
찬송 / 342장
주기도 / 다함께

⊙ 4월 교회일지

종려주일:
4월 1일 (주일)
공동체 주관 예배:
4월 4일 (수)
부활주일: 세례 및 성찬
4월 8일 (주일)
경건 훈련:
4월 18, 19일 (수, 목)
선교예배:
4월 25일 (수)

⊙ 4월 예배봉사자

예배안내 :
추미선/이경자
새신자 안내:
심경순/김광자
주차안내:
양봉욱/민광호
주방봉사
한상순/김윤숙/장태옥/원미경/박제란

⊙ 기도순서

이번 주 수요기도:	김재연 집사
이번 주 애찬기도:	정혜숙 집사
다음 주일 1부:	박제용 장로
다음 주일 2부:	박소망 형제
4월 18일 수요기도:	김종우 집사
4월 18일 애찬기도:	정근업 집사
4월 22일 1부:	이광희 장로
4월 22일 2부:	김정민 집사

금주의 기도제목

1. 국내: 쇠퇴해 가는 뉴질랜드 신앙 열정이 회복되며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신앙훈련으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일으키도록. 예산 부족으로 의료시설이 노후화되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해마다 늘고 있으며 우수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정부가 이에 대한 올바른 대처와 해결책을 찾는 지혜를 모으도록.
2. 교회: 부활의 기쁨과 능력으로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경공부에 관심을 갖고 경건과 룩을 삶 속에 적용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직장, 직업, 비자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섭리가 있도록. 성전 건물 구입이 은혜 중에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3. 국외: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가 백성들의 상처와 아픔을 대신지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겸손히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유권자들이 학연, 지연, 혈연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을 볼 수 있도록, 북한이 교회해체와 박해과정에서 압수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 기독교 교인들이 사용하던 성경책 등 관련 책자들이 밀수꾼을 통해 중국에서 대량으로 팔고 있다.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말씀 앞에 굴복하도록.

계속되는 새로운 역사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 세 가지를 말한다면,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입니다. 사실 세계는 지금도 그 사건을 가장 큰 사건으로 인정합니다. 오늘날 시간을 AD와 BC로 나눈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이 사건도 세계가 인정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십자가는 흉악하고 소름이 끼치는 사형 집행 기구로 누구도 보지 아니하려고 하는 괴물 같은 것으로 취급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표현이 되어서 온 세상에 세워져 있게 되었고 사람들은 이 거룩하고 경건한 표식을 몸에 지니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십자가가 조금 더 화려해졌습니다. 금으로 혹은 다이아몬드 십자가도 있을 만큼 아주 귀하게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기에 그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죽었던 하나님이 다시 살아난 사건입니다. 이것도 온 세상이 다 인정을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합창 소리로 지구를 진동시키고 있는 날이 오늘입니다. 한국에만 50,0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한인 교회만 해도 140 개가량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인류의 대 축제 날입니다.

앞으로 인류 역사에 가장 큰일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심판 주로 재림하시는 사건입니다. 결국, 인간사는 예수의 사건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큰 사건이요 관심사입니다.